

## 자연, 삶, 그리고 제주인의 옷

현진숙 (제주복식문화연구소장)

옷이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수단 외에도 많은 것을 전달하는 무언의 언어로서 그 지역의 풍토와 정치·경제·기술적인 환경, 그 옷을 제작하고 착용하는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생활감각 등 많은 것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현상이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높은 습도로 직물이 쉽게 부패하기 쉽고 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같이 매장하거나 소각하는 풍습 때문에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문헌적인 기록 또한 단편적이어서 제주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살피는 데는 자료가 너무 빈곤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문헌과 얼마 안 되는 유물과 민속조사를 통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제주사람들은 어느 지역보다 그 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의생활을 영리하여 왔다. 제주는 거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인내와 근검, 절약정신과 부지런한 삶이 생활의 근본이다. 따라서 제주사람들은 이러한 생활태도를 반영하고 궁리(窮理)하여 제주만의 독특한 의생활 문화를 창출하여 왔다.

### 1. 평상복

문헌적으로 제주의 의생활에 대한 초기 기록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지리적인 조건에 적응하여 제주만의 독특한 양식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입었던 의복을 기록상으로 유추하면 가족으로 만든 윷도리를 입었으며 삼띠로 앞을 가리고 다녔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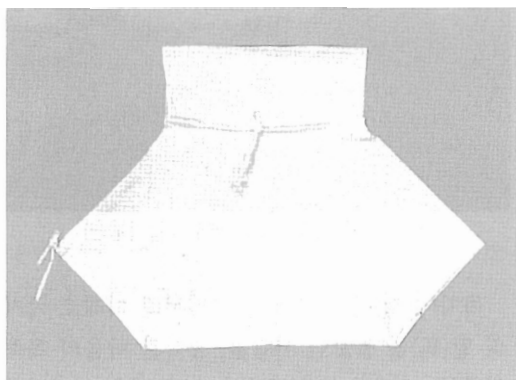
이후 탐라시대에는 한반도, 중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과의 문물교류로 외부의 요소가 제주양식과 혼합하여 새로운 제주의 의생활을 이루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유물과 민속적인 자료를 토대로 평상복의 특징을 보면 기본구조는 다른 지역과 같다. 그러나 제

주만의 특징이라면 노동이 생활의 연속이기 때문 노동복이 평상복화 하는 현상과, 내의(內衣)가 외의(外衣)화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굴중이는 내의(內衣)지만 노동을 할 때나 집안에서는 평상복으로 입다가 문밖 출입을 할 경우 굴중이 위에 치마만 걸치면 되었다. 그리고 머리수건도 일할 때는 햇빛 가리개와 땀 닦는 용도지만 외출할 때는 예의용으로 머리에 쓰는 쓰개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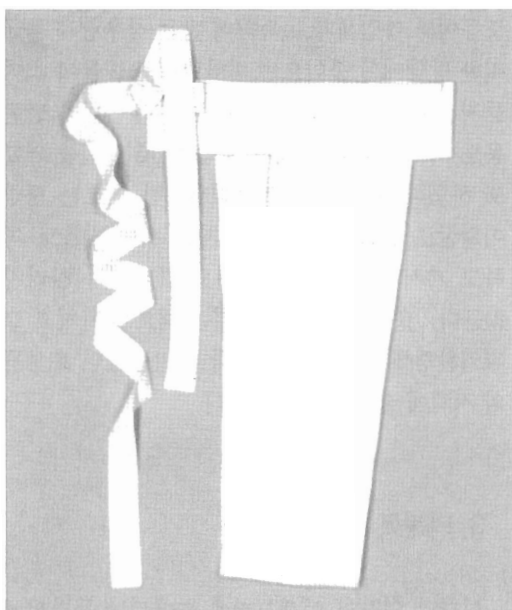
제주의 신분해체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었지만 거주지역이나 생업에 의해 양촌과 포촌(浦村)으로 구분되었다. 농업위주인 중산간 마을을 양촌, 어업위주인 해안가 마을을 포촌이라 하였는데 양촌이 포촌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서 소중이라는 속옷

을 천시 여겨 입지 않았다. 그런데 1900년 초부터는 소중이가 속옷으로 보편화되었다. 형태는 물소중이와 같지만 가슴부분까지 올라오지 않고 허



소중이 (자료 : 제주국립박물관)

리까지만 오게 하여 허리에서 끈으로 매도록 되어있다. 부지런한 제주사람들이 고안한 소중이는 한번 만들면 체중이 가감하여도 입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또한 일할 때에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고안되었다. 그리고 상류층



다리속곳 (자료 : 제주국립박물관)

에서는 소중이를 입지 않고 다른 지방과 같이 다리속옷을 입었다.

## 2. 노동복

제주의 대표적인 노동복은 갈옷과 잠수복, 목자복이다.

### 1) 갈옷



김매기 하는 모습에서 너른바지를 입고 무릎 밑을 끈으로 묶어 활동하기에 편하도록 하였다. (자료 : 제주교육박물관)

노동복으로는 내의로 입던 굴중이에 대님을 매어 입다가 차츰 통이 좁고 바지 단에 겹띠를 달고 허리에는 각각 앞뒤로 끈을 달아 입었다. 일제시대 때 「몸빼」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입고 벗기가 편하고 옷감도 적게 들어 실용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갈옷은 이러한 노동복을 감물로 물들인 천으로 만들거나 옷에 감물을 들인 것이다. 갈옷은 제주의 자연환경에 최상의 조건을 구비한 옷이다. 입고 일할 때 몸에 달라붙지 않아서 시원하고 땀이 차지 않으면서도 통풍도 잘 된다. 그리고 땀에 젖은 옷을 그냥 두어도 쉽게 썩거나 상한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더러움도 덜하고 더러워져도 쉽게 눈에 띄지 않고 또 더러워진 흙먼지도 빨면 때가 잘 빠져서 물이 귀한 제주에서는 안성

맞춤이다. 그리고 뺏뺏하고 질겨서 옷을 오래 입을 수 있고 풀밭이나 가시덤불 사이를 지나가도 잘 걸리지 않고 보리 까끄라기 같은 것이 쉽게 달라붙지 않으며 붙었다가도 털면 잘 떨어진다.

### 2) 잠수복(물 옷, 해녀 복)



잠수복(물옷, 해녀복) (자료: 윤세철 사진집)

잠수복은 바닷물 속에서 해산물을 캐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의 옷으로 이들이 물질을 할 때 입는 옷을 말한다. 잠수복으로는 물소중이, 물적삼, 물수건, 눈(물안경)을 1970년대까지 입었는데 아마도 최초의 여성전문직업복이라 생각된다. 물옷을 언제부터 입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한 발생요인이나 시대에 대한 기록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1702년의 기록인 『탐라순력도』에 물질하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물소중 같아 보여 이러한 형태의 물옷이 1970년대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다 이후부터는 고무옷을 입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물소중이는 상체는 몸의 체형에 맞게 하고 하체는 밀 바대가 바이어스로 되어 있어서 신축성이 있고 또 겹으로 되어 있어 견고하여 물 속에서 작업하기 편리하고 신체를 다 드러내지 않고도 입고 벗을 수 있다. 또, 여밈을 단추매듭과 고리로 하기 때문에 신체가 증감되어도 그것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이렇듯이 궁리하여 고안한, 제주인의 특성을 잘 반영한 옷이다.

### 3) 목자복



도롱 입은 목자 (자료: 제주국립박물관)

목자(牧者)라는 용어는 고려시대 이래로 국가의 말(馬)을 돌보던 사람들, 중산간 마을의 목축업자들, 그리고 목축업자의 소와 말을 일정기간 동안 맡아서 돌보던 「테우리」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목자가 한라산 중턱에 방목시킨 마소를 돌보러 갈 때는 추위와 갑작스런 비에도 피할 수 있는 의복이 있어야 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개가죽으로 만든 두루마기와 가죽감퇴, 가죽발레, 가죽버선, 가죽신 등을 신으면 최고였다. 일반 서민들은 도롱이라고 하는 비옷을 입었다. 도롱이의 짜임새가 독특하여 많은 강우량과 불규칙한 방향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에도 빗물이 스며들지 못한다. 이 도롱이는 비옷 뿐만 아니라 방한용도 되고 산이나 들에서 노숙 할 때는 이불 역할도 하였다. 머리에는 정동벌립이라 부르는 땀망이덩굴로 촘촘하게 결은 모자를 쓰면 빗물도 피하고 가시덤불을 뚫고 다녀도 긁히거나 걸리지 않는다. 중산간 일대에서 얻은 재료를 가지고 그 지역환경에 순응하는 의생활을 만들었던 조상들의 지혜에 절로 감탄하게 된다.

### 3. 의례복

의례란 인간의 인생고비에 수반되는 통과의례

를 말하며 이 때 입게 되는 특별한 의복을 의례복이라 한다. 제주의 의례복에는 붓뒤창옷, 혼례복, 호상옷(수의)등이 있다.

### 1) 붓뒤창옷



붓뒤창옷 (자료 : 제주국립박물관)

붓뒤창옷이란 배넛저고리를 말하는데 '아기가 아기집에서 나온 다음 입는 큰옷'이라는 뜻이다. 제주에서는 삼베로 만들었으며 옷고름 대신 무명실을 꼬아 달아 무명장수를 염원하였다. 특히 소매는 삼베옷감의 폭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만드는데 이 또한 아기가 온전하게 자라기를 염원하는 뜻에서였다. 그리고 건강하게 자란 아기가 입었던 붓뒤창옷은 손이 귀한 집에서 빌려다 입히기도 하였는데 반드시 되돌려 받았다. 이는 이 옷에 깃든 복을 간직하기 위함이며 중요한 시험이나 소송(訴訟)에 나갈 때 지니고 가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하여 부적(符籙)처럼 몸에 지니고 가게 하였다.

### 2) 혼례복

혼례는 해방 후부터 교통수단에 따라서 「신식 결혼」, 「구식결혼」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구식은 우리 고유의 풍습을 이어 오는 것이고 신식은 양장이 등장하여 신랑이 양복을 입고 신부는 흰 치마 저고리에 머리에는 흰 너울을 쓰는 것을 말한다. 구식 중에서도 새각시의 교통수단, 즉 독교(獨轎)를 이용할 때는 장옷을 입었고 가마를 탈 때는 원삼과 족두리 차림이다. 장옷은 다른 지방에서는 쓰개류였지만 제주에서는 입는 용도로 사



원삼과 족두리 쓴 혼례복(자료 : 제주여성문화)

용하였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계를 조직하여 원삼과 족두리, 가마, 사모관대 등을 장만하여 빌려 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 3) 호상옷(수의)

호상옷, 즉 수의(壽衣)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입는 옷으로 다른 지방에서는 삼베로 하지만 제주에서는 명주를 최고로 여겼다. 보통 결혼 때 입었던 옷을 환갑 때 입고 다시 죽으면 호상옷으로 입었다. 결혼 때 빌려 입어서 호상옷이 없을 경우에는 환갑 때나 윤달에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 이 옷을 만들어 두면 수명이 길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윤달에 만드는 이유는 공(空)달이라 하여 입을 사람의 평안을 염원하는 뜻에서 택하였다. 바느질을 할 때는 매듭을 매거나 뒷 바느질을 삼갔다. 이는 이 세상에서 맺힌 한을 풀고 가라는 염원과 뒤돌아보지 말고 잘 가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치수나 폭 수도 홀수로 하는데 이는 저승 갈 때 짝을 찾지 말고 혼자 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렇듯이 제주의 의생활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지혜가 담겨 있으며 한울의 옷감도 허투루 허비하지 않는 검박한 삶과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 등 그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산물임을 알 수 있다. 